

## 치까나 페미니즘 문학과 경계\*

강 성 식  
서울대학교

강성식(2013), 치까나 페미니즘 문학과 경계.

**초 록** 이 글은 '경계' 개념을 중심으로 치까나 페미니즘 문학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경계 지대와 치까노/나는 미국의 멕시코 땅 '정복'과 인종주의의 결합으로 생겨났는데, 경계지대의 형성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멕시코인으로 멕시코에서는 미국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때문에 경계지대의 새로운 문화시민인 치까노/나들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경계를 지속적으로 넘나들어왔다. 그런데 그들이 가로질러야 하는 경계는 단지 지리적인 경계만이 아니라 언어, 정신, 심리, 민족, 인종의 경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치까노/나들은 한 집단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가 다른 집단의 그것으로 변화하는 산물로서의 인간이다. 인종, 국가, 언어, 젠더, 섹슈얼리티 및 문화들 간 '교차로'에서의 삶에서 메스띠사 의식이 생겨난다. 그 같은 한계적이고 파편적으로 경험된 주체성에 목소리를 부여하기 위해 치까나 페미니스트 작가들은 장르 범주화에 맞서며 모든 상이한 장르의 경계를 가로지른다. 또한 치까나들은 스페인어로도 영어로도 완전히 정체성을 부여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두 언어의 코드 바꾸기라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그것은 경계인인 그들만의 고유 언어를 창조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코드 바꾸기는 문화를 가로지르는 정체성의 표현이요 그들의 문학을 문화적 경계에 위치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잠차 치까나 페미니스트들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경계는 바로 치까나 지식인과 치까나 대중 간의 경계다.

**핵심어** 치까나, 페미니즘, 경계, 메스띠사, 정체성

---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2A-A00170).

## I. 치카나 페미니즘

미국 역사에서 치카노/나(Chicano/a)의 활동은 보이지도 않았고 고려되지도 않는 흐릿한 그림자 같은 것, 즉 배경에 불과했다. 하지만 치카노/나의 활동은 그 인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며 지속되고 있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치카노 역사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보이지도 않았고 고려되지도 않는 흐릿한 그림자 같은 것, 즉 배경에 불과했지만 치카나나 메스티사의 활동 역시 그 인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며 지속되고 있었다. 것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던 치카나들이 그 모습을 다소나마 체계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치카노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197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카노 운동 역사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치카나들의 주요 논점들이 치카노 민족주의 운동의 남성적 담론에 묻혀 이렇다 할 면모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치카노 운동이 쇠락해가던 시기인 1981년 체리에 모라가(Cherríe Moraga)와 글로리아 안살두아(Gloria Anzaldúa)의 『내 등이라 불리는 이 다리 *This Bridge Called My Back*』가 출간됨으로써 치카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한층 활발해졌다. 하지만 그 책이 출간된 이후인 1980년대 말까지도 치카나 페미니즘 이론은 주로 학계 내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같은 상황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으며 치카나 페미니즘이 사회적으로 그 존재감을 명확히 한 계기는 글로리아 안살두아의 『경계지대: 새로운 메스티사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1987)의 발간이었다.

치카나들의 언어, 정체성, 페미니즘, 계층, 역사 등을 전면적으로 다룬 『경계지대』가 등장하자 치카나들은 복합적인 자신들의 정체성이 그 책을 통해 마침내 구체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그 텍스트는 많은 치카나들의 정신적, 심리적, 정치적 문제들의 지침서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치카나 페미니즘이 이전 시기에 비해 한 단계 더 대중화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경계지대』는 특히 여성 중심적 메스티사 모계의 계보를 복구함으로써 치카나 경계문학의 교과서 같은 책이 되어 산드라 시스네로스(Sandra Cisneros), 히나 발데스(Gina Valdés), 데니스 차베스(Denise Chavez), 아나 까스띠요(Ana Castillo),

엘레나 마리아 비라몬테스(Helena María Viramontes), 팻 모라(Pat Mora), 알  
 마 루스 비야누에바(Alma Luz Villanueva), 베르니세 사모라(Bernice Zamora)  
 같은 치카나 작가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해주었다. 그렇게 확산된 치카나 페  
 미니즘은 젠더와 인종의 평등을 옹호하는 치카나 자유주의 페미니즘, 인종  
 적, 계급적, 젠더적, 성적 불평등 등 모든 억압이 끝날 때까지 혁명적인 변화  
 를 추구하는 치카나 전복 페미니즘, 정의와 젠더 평등을 향한 투쟁을 주장하  
 는 치카나 문화 민족주의 페미니즘 등 다양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고 있다. 현  
 대 치카나 페미니즘은 일반적으로 가족 제도에 대한 재규정의 필요성 제기,  
 지배 문화와 치카나 공동체 내의 가부장주의 비판, 과달루페(Guadalupe) 성  
 모나, 말린체(Malinche), 요로나(Llorona) 같은 몇몇 문화 상징의 공유, 차별  
 의 근거가 되는 이원론적 분리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 여성의 정체성, 특히  
 성적 정체성과 주체성 탐구에 주력하면서 치카나에 대한 억압의 조건들을  
 파악하는 한편 스스로 힘을 갖기 위한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여성의  
 즐거움, 창조성, 지성, 원주민적 정체성에 대한 조명을 통해 여성 삶의 질과  
 조건을 향상시키고 자아성취를 향한 기회를 증대시켜 여성 주체에 대한 대  
 안적 사고와 새로운 인종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제공하려 한다.

안살두아의 『경계지대』 등장으로 인해 치카나 페미니즘 문학에서 중심 논  
 쟁거리로 부각된 개념이 ‘경계’ 개념이며 그 개념은 치카나 페미니즘의 매력  
 적인 메타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안살두아가 말하는 경계는 단순히 지리적  
 인 것만이 아니라 성적, 언어적, 심리적,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다. 레즈비언으로서 안살두아는 동성애를 혐오하고 이성애를 옹호하는  
 사회의 경계에 있으며 언어적으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회와 영어를 사  
 용하는 사회의 경계에 있다. 또한 그녀는 미국 문화에서도 멕시코 문화에서  
 도 이방인, 경계의 양측 모두로부터 소외된 여성이다. 그래서 안살두아는 치  
 카나 페미니즘의 핵심 주체인 새로운 메스피사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이 경  
 계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도 치카나 페미  
 니즘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계 개념을 중심에 두고 치카나 페미니즘 문학의

일부 면모를 살펴보려고 한다. 본문에서는 국경의 이동이 미국의 인종주의와 결합함으로써 경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경계인으로서의 치카노/나들, 특히 치카나들 정체성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경계를 넘나드는 양상이 치카나 문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신해서 치카나 페미니즘이 시급히 넘어서야 될 또 하나의 경계를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 II. 경계지대의 형성

치카나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대형사건 위주의 시간과 주제를 따진다면 중요한 네 시기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521년의 스페인의 아스떼카 ‘정복’기, 1846-8년의 미국과 멕시코 간 전쟁기, 1910년의 멕시코 혁명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치카노 민족주의 운동기가 그 네 시기에 해당한다. 물론 오늘날 치카나 페미니스트들이 전통적 여신들에 대해 새로이 평가하면서 그 여신들을 자신들의 문화 상징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하면 고대의 신화적 시기도 고려해야 한다. 신화에 따르면 ‘신들의 어머니’이자 ‘뱀 여인’인 파틀리꾸에(Coatlícuē)가 괴이한 사건으로 인해 ‘전쟁의 신’ 위칠로보츠틀리(Huitzilopochtli)를 임신하자 자식들인 꼬올하우끼(Coyolxauhqui)와 센촌 위츠나와(Centzon Huitznahua)가 성적 타락을 이유로 어머니를 죽이기로 하는데 꼬올하우끼가 파틀리꾸에를 죽인 바로 그 순간 위칠로보츠틀리가 태어나 누이인 꼬올하우끼의 목을 쳐 그 사지를 산에 버린다. 그 신화는 남성 신들이 여성 신들을 지배하는 시대의 도래, 즉 모계 사회에서 남성 중심적 가부장주의 사회로 전환되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성적 억압을 감내해온 치카나들로서는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부정당한 아주 의미심장한 신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다섯 시기 중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 그리고 멕시코 혁명이라는 두 시기만 다루어 보기로 하자. 그런데 그에 앞서 먼저 언급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바로 19세기 미국이 견지하고 있던 인종주의

적 관점이다.

미국의 영화나 소설은 멕시코를 각종 비정상적인 행위 혹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에 어울리는 ‘원시적’ 공간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동성애를 다루는 영화들 같은 경우 동성애 육체관계는 주로 미국 국경을 넘어 멕시코에 가서야 이루어지며 미국 관객들은 멕시코를 성적 경계의 가로지름이라는 비일상적인 행위가 벌어질만한 자연스러운 장소로 여긴다. 그러한 경향은 귀어한 일들을 유색인 같은 특정 주체에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된 국가 같은 특정 장소에 배치하는 미국의 일반적이고도 일방적인 성향에 의한 것이다. 미국은 암묵적으로 제 3세계는 어둡고 원시적인 곳, 본능적 쾌락이 보다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어울리는 곳인 반면 제 1세계는 밝고 문명화된 곳이라고 간주하는 일종의 인종적, 지리적 이항 대립 관계를 상정한다. 그 말은 곧 백인은 문명이라는 가치와 원주민이나 메스티소는 야만이라는 가치와 등치시키는 수직적 이원론의 정립을 의미한다. 미국이 보여주는 그 같은 태도는 백인 중심적 인종학에 그 뿌리가 있다.

19세기 인종학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에 기초해서 모든 인종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생겨났다는 인류일원설(monogenism)에 근거를 두면서 에덴동산의 순수성 상태에서 가장 적게 타락한 인종이 백인인 반면 가장 많이 타락한 인종이 흑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같은 인종학은 결과적으로 유럽인 후손들의 심리 기저에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가 자리하게 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문화가 18세기 말에 형성되었고 그 문화는 백인, 영국인, 청교도 문화였다.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최근 주장은 그런 인종주의가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해준다.<sup>1)</sup> 그런데 미국에서는 인류일원설과 함께 인류다원설(polygenism), 즉 여러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기원했다는 시각도 같이 발전했다. 인류다원설에서는 각기 다르게 탄생한 인종 간의 통혼을 비자연적이고 불순한 행위로 간주하

1) 유럽 출신 백인들의 후손들은 자신들만이 진짜 미국인이라고 하지만 그 ‘오래된’ 이민자들 역시 과거 자신들의 메스티사해를 잊은 것일 뿐이다.

고 인종의 혼종화(hybrid), 즉 상호 오염의 방지를 주장했다. 노예 해방 후인 1860년대 미국 남부 지방이 혼혈, 즉 물라토의 등장을 막기 위해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것처럼 백인, 영국인, 청교도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했다던 미국이 혼혈 인종인 메스티소/사의 나라 멕시코를 야만적인 국가로 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런데 그런 인종주의의 한 면모가 ‘명백한 운명론’으로 그 모습을 바꾸면서 식민화 담론으로 발전했다. 문명사회인 미국에게는 야만사회인 멕시코를 진보의 길로 인도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는 핑계로 전쟁을 통해 멕시코 영토 일부를 강제로 편입시켜버린 것이다. 교묘하게 포장된 미국의 인종주의는 이후 벌어진 각종 학살, 노예화, 정복, 억류 등에 대한 정당화 논리로도 작용했다.

미국-멕시코 전쟁과 1848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국경이 바뀌면서 현재 미국 남서부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 시민으로 변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인종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던 미국에게 있어 새로운 시민들은 달갑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다. 미국은 만약 인종 간의 피가 섞이게 되면, 즉 타락하면 멕시코처럼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새뮤얼 헌팅턴이 말하듯, 앵글로 백인들 입장에서 그들은 미국 문화를 오염시켜 미국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들지도 모르는 존재들, 즉 ‘내부의 적’이었다. 때문에 미국은 ‘그들’ 치카노/나들과 거리를 두면서 대상화함으로써 접촉을 끊어버리는 태도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국인들은 미국 남서부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하지만 역사란 언제나 이긴 자의 기록이기에 승자에 의해 날조됨으로써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둔갑시켜 새 시대나 새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게 마련이다. 미국 역시 앵글로 계 미국인에 비하면 그 땅의 토박이였던 치카노/나들을 그 땅의 이방인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역사 왜곡 과정을 밟았다. 그 계기의 하나가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골드러시였다.

1848년 1월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고 미국-멕시코 전쟁 직후인 1849년 골드러시가 일자 외지에서 백인, 앵글로인들이 몰려들었고 ‘정복자’ 미국

은 마치 그곳이 원래부터 미국의 영토였던 것 마냥 자국의 정체성 속으로 포섭해버린다. 그 결과 1848년 이후 1년 만에 원래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현지 토박이들이 지배자가 아닌 피지배자로 전락했고 몰려든 이방인들 속에서 피지배자들인 현지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이후 그 지역의 원래 토박이는 앵글로인들이었고 낯선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인식이 당연시 되었다.<sup>2)</sup> 과거에는 멕시코인들이었지만 미국의 국민 아닌 국민이 된 그들의 가시성이 부정되는 사건, 국내적 추방 상태에 놓이는 사건이었다. 그로써 그들 및 그 이후 세대인 치까노/나들은 미국으로부터 배제된 시민이 되어 미국 사회의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전락해서 안 보이는 영역, 기억 속에서나 존재하고 출몰하게 되었다. 그 역전 과정에서 앵글로 식민자들이 인종주의적 정책을 펼침으로써 식민화된 주민에 대한 인종적, 문화적, 지배권을 확립했음은 물론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함께 당시 미국에 의해 흡수되어 오늘날 중서부 치까노/나 대다수의 조상이 된 사람들은 텍사스 인들을 들 수 있는데, 텍사스에서도 인종주의는 냉혹한 현실을 낳았다. 그곳에서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옛 멕시코 인들을 향한 인종 테러를 자행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때문에 경계 위의 페미니즘(feminism on the border)을 주장한 소니아 살디바르-헐(Sonia Saldívar-Hull)은 리오 그란데 강 골짜기에서는 역사적으로 1950년대까지도 미국인이 되지 않는 것이 매우 위험했다고 술회한다(2000, 2).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됨으로써 그 정체성과 역사를 빼앗기기는 텍사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미국 내 이방인이 된 새로운 시민들은 미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토지도 상실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토지 조사 사업으로 우리 조상들이 토지를 강탈당했듯 미국 남서부 시민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토지를 잃게 된다. 법정에서 토지 소유권을 새로이 인정받아야 했으나 영어라는 언어적 장애에 가로막힌 그들 중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토지를 강탈당한 것이다. 또한 존 스

2) 물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옛 멕시코인들 역시 그곳 토박이가 아니라 과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몰아낸 이주민들이었다.

타인백(John Steinbeck)의 『분노의 포도 *The Grapes of Wrath*』가 잘 그려내고 있듯 1930년 무렵 미국 남부는 세계 공황과 극심한 가뭄, 대자본의 진출<sup>3)</sup>이라는 다중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미국인들에 비해 사정이 더욱 안 좋았던 멕시코인 후손들은 당시 세금 미납이나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1848년 이후 국경이 바뀌면서 국적이 바뀐 사람들은 미국 내 소수자가 되어 여러 가지로 내적 식민을 경험하게 된다. 강제 편입, 문화 충격, 자신들을 경시하는 지배 세력에 의한 통치, 인종주의적, 민족주의적 멸시라는 과정은 공간적, 육체적 차별과 억압, 경제적, 정치적 권리 박탈로 이어졌고 그 결과 대다수의 멕시코인들과 그 후손들은 사회적 하층민 혹은 노동 계층으로 전락해서 계층적으로도 백인들과는 구분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멕시코인들은 물론 멕시코-아메리칸에게 있어서도 ‘정복’은 코르테스(Cortés)의 ‘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멕시코 땅이었던 미국 남서부를 미국이 강탈해간 사건을 의미하기도 했다.

인종 집단으로서의 치카노/나들은 리오 브라보 강을 건너다니는 데 익숙해져 있던 공동체를 인위적으로 분할해 놓은 ‘정복’ 그리고 그 결과로 생겨난 자연스럽지 못한 정치적 경계인 리오 그란데 강을 통해 구조화되어 왔다.<sup>4)</sup> 그와 관련해 한번쯤 생각해볼 개념들이 있다. 바로 많은 경계시대 문화 비평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메스티사헤(mestizaje)’, ‘혼종성(hybridity)’, ‘혼합(syncretism)’ 같은 용어들이다. 올란다 브로일레스-곤살레스(Yolanda Broyles-González)는 사람들이 그 같은 추상적 용어에 주의를 빼앗기는 이유가 가시적인 ‘뒤섞임’만 보고 문화 말살, 저항, 그리고 그 저항을 낳는 자기 확인(self-affirmation)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Norma E. Cantú & Olga Nágera-Ramírez 2002, 122). 그런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 이면에 숨어서 작용하고 있는 식민주의의 은밀한 압력 그리고 그에 맞서는 피식민자들의

3) 19세기 후반까지도 전 자본주의(precapitalism)의 시기에 머물러 있던 남부 농업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화 되고 그로 인해 농업 자본이 등장했다.

4) 동일한 강을 멕시코에서는 리오 브라보 강으로 미국에서는 리오 그란데 강으로 부른다.



끈질긴 장력을 잊지 말고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치까노/나들 역시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조건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문화 가치만큼은 과거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러므로 치까노/나들은 앵글로 문화에 의해 수몰당할 위험을 항시적으로 안고 사는 잠재적인 문화 실향민 혹은 수몰민이지만 그 위험에 맞서서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지키려는 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사이기도 하다. 그 같은 상황으로 인해 치까노/나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혈통주의를 우선시 하는 아시아 계보다도 더 강하게 자신들의 언어적, 인종적, 민족적 전통을 고수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

아메리코 빠레데스(Américo Paredes)의 유명한 표현대로 ‘국경이 자신들을 넘어오는’ 상황을 겪은 멕시코-아메리칸들 외에 미국 내 치까노/나 문제와 관련해서 덧붙여 언급해야 할 사람들은 멕시코 혁명 와중에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 간 사람들이다. 국경 문제로 국적이 바뀐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자발적 이주 세대로 그 수가 대략 백만 명에 달했다. 그들 대부분은 애초 고국이 안정되면 되돌아 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1930년대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체념하고 있었다. 그들 역시 미국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공동체 내부의 사적인 대화에서는 앵글로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했다. 단순 이주자들이 자신들 고유의 것을 잇는 경향을 보이며 해당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이나 문화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몸에 새겨진 멕시코라는 문신은 동화나 적응, 문화접변(acculturation) 등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정착을 택한 그들에게 멕시코는 이제 지리적이 아닌 정신적 고향이 되었고, 민족 유산, 문화 가치를 유지하던 그들은 스스로를 ‘외부의 멕시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국경 문제로 미국인이 된 멕시코-아메리칸과 이주 세대 공히 시간이 흐르면서 집단 기억 속에서 아스플란이라는 신화적 원형을 열망하며 재구성하고 재서술했다. 시간을 역전시켜 신화적 과거와 미래를 동일시했고 원형에 대한 신화와 기억을 간직한 역사를 통해 영원 회귀를 추구했으며 집단 기억은

고립된 자신들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두 부류 모두 디아스포라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에서 다르게 살기’를 지향하는 디아스포라 집단은 음악, 음식, 옷, 언어 등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변형적 유동성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기 마련이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문화를 가로질러 여행하고 인종을 가로질러 여행하며 스스로를 창조하고 재창조하며 거듭 새로워진다. 멕시코인으로 자부하던 미국인들 역시 멕시코인이나 미국인, 멕시코-아메리칸, 치카노/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모로 재창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창조된 치카노/나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자신들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정적인 역학과 멕시코를 야만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미국 주류 문화에 대응하려는 동적인 역학의 긴장관계가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여기서 앵글로 백인들이 그 ‘마뜡찮은’ 민족의 여성들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골드러시 시기에 미국 남서부 지역으로 진출한 미국 백인들은 (과거) 멕시코 여성들이 남들 보는 앞에서 수유를 하는가 하면 시야에 들어올 만 한 거리에서 목욕을 하며 여성용 속옷을 입지 않고 성적 표현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19세기 멕시코 여성은 18세기 흑인 여성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인들에 의해 성적 타락의 아이콘이자 매춘부와 동의어로 매도당했다. 물론 19세기 말 이후 그리고 20세기 초가 되면 산업화와 함께 사회로 진출하는 백인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미국 중산층에서도 성적인 면에서 변화가 생기고 때문에 성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지만, 치카나들은 이미 인종적으로는 물론 성적으로도 편견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다. 식민 초기 연대기 작가들이 자신들 보고 싶은 대로 아메리카를 묘사했듯이, 미국인들 역시 주류로 자처하면서 그들 ‘타자’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이미지를 고착화시켜버린 것이다. 또한 치카노 사회나 멕시코 사회 자체도 그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정치적, 문화적 관행 내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종속시킴으로써 역시 타자화한다. 치카노 사회가 국가 내에서 점유된 국가라면 여성 및 여성의 젠더와 성은 치카노 국가 내에

서 또다시 점유당한 영토인 셈이다. 것처럼 치까나들은 성과 젠더라는 문제에 있어 안팎으로 곤경에 마주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계층 및 인종 문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젠더 문제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모순은 오늘날까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그것이 현대 치까나 작가들의 글쓰기를 활성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치까노에 비해 교육 받을 기회도 적고 가정 외부의 활동을 금기시당하기에 경제적 능력마저 치까노보다 떨어지는 치까나들은 치까노/나 사회에서도 경계인이 되는 상황에 놓인다.

### III. 경계 위의 존재 치까나

일반적으로 멕시코노/나는 이민자, 치까노/나는 미국 태생 멕시코 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지만 그런 구분은 정책적 이해관계나 인구학적인 목적에는 부응해도 문화 영역에서는 둘 간의 구분이 애매하거나 지워져버리는 경향이 있다(Rosa Linda Fregoso 2003, xiv). 뜻하지 않게 미국인이 된 멕시코인들 역시 그들 내부의 차이, 가령 계층 차이 같은 것이 앵글로인들과는 구분되는 인종적, 민족적, 계층적 정체성 속에서 소멸됨으로써 하나의 종(種)으로 환원되고 만다. 이후에도 미국은 치까노/나와 유색인 역시 개인이 아닌 종 집단으로 간주해버렸고 나아가 멕시코노/나와 치까노/나의 차이마저 무화시켜 ‘타자’라는 하나의 사회적 범주로 묶어버렸다. 문제는 그들이 미국에서는 멕시코인 취급을 받지만 멕시코에서는 미국인으로 대우받는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물리적, 정신적, 지리적으로 두 곳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양쪽 모두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팻 모라는 한 시에서 “미국인 하지만 -이 붙은 미국인은/ 앵글로인들에 의해 아마도 이방인으로/ 아마도 열등하게, 결정적으로 다르게 보이고/ 멕시코인들에 의해서는 외국인으로 보인다/ ... 멕시코인에게는 미국인,/ 미국인에게는 멕시코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Saldívar-Hull 2000, 82).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멕시코 여성, 즉 멕시코-아메리칸으로서 자신이 두 문화 중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않는 어정쩡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표

현한 것이다. 그래서 안살두아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는 고아’라고 표현하고 있다(2007, 80). 것처럼 여러 치까나 작가들은 양 국가나 문화와 관련해서 이중적으로 내부인이지만 동시에 이중적으로 외부인인 본인들의 상황을 깨달았을 때의 당혹스러움을 작품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치까노/나들이 가난하게 산다는 모순은 본인들을 그 세계에서 떨어져 있는 나라의 일원으로 여기게 만든다. 치까노/나들이 현재 자신들의 거주지인 미국이 아닌 머나먼 옛날의 고국 멕시코에 대한 신화적 향수를 창조해내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치까노/나들의 초기 정체성 구축에 아스플란이라는 상상 공동체가 기여했다면 양 측 모두로부터 소외되지만 양 측 모두에 시선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있어 멕시코시티 자체도 기억의 성스러운 중심으로 기능한다. 여러 치까나 페미니즘 작가들의 말대로 여신 파틀리꾸에의 여러 면모들 중의 한 측면인 파틀랄로빼우(Coatlalpeuh) 여신이 현재 멕시코의 국가적 여신이자 혼혈 인종 정체성의 상징인 과달루페와 동일한 존재라면 과달루페가 발현한 멕시코와 멕시코시티는 그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아스플란, 즉 신화 상 원향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게다가 아스떼카 제국과 여신들의 도시, 메소아메리카 세계의 수도, 스페인 식민 제국의 수도,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치까노/나들을 태어나게 만들어준 상징적인 도시이기에 다중으로 성스러운 도시, 양피지 같은 도시가 된다. 때문에 그들에게 멕시코(시티)는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기억을 통해 반복되는 신화적 공간, 시간 경계를 가로지르고 식민 구조에 맞서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가령 중부 텍사스, 특히 샌안토니오와 오스틴에서 주로 살았던 시스네로스는 멕시코의 조부모를 방문하곤 했던 일에 대한 무정형의 기억이 자신의 전망과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기억을 통해 국경 ‘이쪽’ 공간과의 신화적 연결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 새로운 아스플란에 대한 기억의 힘으로 매개된 멕시코(시티)는 시간의 간극도 극복시켜준다는 의미다.

안살두아가 지적하듯 미국 내 치까노/나들이 스스로 멕시코인으로 자부

할 경우 그것은 국가 정체성이 아닌 인종 혹은 민족 정체성이며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영혼의 상태를 의미한다(2007, 84). 그들이 국경 '이쪽'의 멕시코인과 국경 '저쪽'의 멕시코인을 구분하는 것도 그 때 문이다. 치까나들이 국경 '저쪽'의 멕시코인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은 멕시코 여성작가들과 비교해보면 확연해진다. 멕시코 여성 작가들의 경우 주 관심사는 젠더 문제이며 인종이나 민족, 계층, 섹슈얼리티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은 치까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로사리오 까스떼야노스(Rosario Castellanos), 엘레나 가로(Elena Garro), 엘레나 뽀니아또브스까(Elena Poniatowska) 등 일부 멕시코 여성 작가들도 치까나 작가들처럼 멕시코 문화사에 근거해 정체성을 추구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멕시코 여신들에 대해서는 치까나들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멕시코에 살고 있는 그들은 멕시코의 유산에 직접 받을 담그고 있어서 치까나 작가들과는 달리 원주민이나 멕시코 정체성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이 그 한 이유다. 그러므로 산드라 시스네로스가 주장하듯 치까나들은 멕시코인들보다 멕시코에 더 애국적인 사람들이다(Hector A. Torres 2007, 211). 더 이상 멕시코인이 아닌 미국인이지만 오히려 멕시코인들보다 한층 더 멕시코적인 사람들인 치까나/나들의 역설적인 상황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이중의 정체성을 형성시킨다. 그들은 스스로 미국 문화 가치와도 멕시코 문화 가치와도 동일시하지 않는다. 대신 두 문화가 어우러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빛어내는 새로운 문화를 소유하게 된다.

두 문화로부터 모두 소외받는 치까나들이지만 그들은 역설적으로 두 사회와 두 문화를 모두 품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호세피나 로페스(Josefina López)의 희곡 『단지 마리아 Simply María』에 등장하는 '멕시코는 내 피 안에 있고 미국은 내 마음 안에 있어(Deborah L. Madsen 2000, 33)'라는 말이 이를 잘 말해준다. 멕시코 계와 앵글로 계 간의 계층관계, 인종관계, 노동관계 속에서 문화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치까나/나들은 근본은 전통에 의존하되 학교, 법, 정치 체제 등에 의한 미국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결과 그들

만의 독특한 경계 문화가 탄생하게 된다. 경계 위의 새로운 문화 시민이 창조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경계시대 테제의 조직화 원칙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가 경계가 경계 양편의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또 역설적으로 연결시키는 상이한 문화 공간을 어떻게 창조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Luis D. Leon 2004, 57). 메타포적으로 보면 경계 위의 존재라는 의식은 제도, 종교, 법, 공간, 상징적 장벽 등을 극복하려는 일상적 의지를 안고 사는 것이다. 두 문화에 모두 속해 있는 동시에 두 문화 사이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도 한 그 상황을 네뻬틀라이즘(nepantlaism)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안살두아는 그것을 길 사이에서 찢어진다는 의미로 규정하면서 메스띠사 상황으로 연결시킨다.<sup>5)</sup> 메스띠사는 두 문화 사이에 끼어 있는 또 하나의 문화 요람에 눕혀져서 그 세 문화와 가치에 모두 발을 걸치고 살의 투쟁, 경계의 투쟁, 내면의 투쟁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이다(2007, 100). 그것은 단순한 혼합과는 다른 것으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비틀린 상태를 의미한다. 그 같은 한계 상태는 일반적으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역동성을 출산한다. 정신적 네뻬틀라이즘의 지속 상태에서 메스띠사는 한 집단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들이 다른 집단의 그것으로 변화하는 산물로서의 인간이며 따라서 지속적 전이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안살두아에게 있어 경계지대는 안전하고 또 불안정한 공간,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공간이다(2007, 25). 그래서 안살두아는 제 1세계가 제 3세계와 부딪치는 텍사스 남부의 주민들은 피 흘리며 벌어진 상처(una herida abierta) 내에서 사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경계의 거주자인 그들은 매일 제 1세계와 제 3세계의 문화적 간극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제 3의 공간에 거주하는 새로운 메스띠사는 경계 없이 살아야 하며 교차로의 정체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미국 남서부는 제 1세계 내 제 3세계의 투쟁 공간이자 페미니즘 공

5) 안살두아는 네뻬틸리즘(nepantilism)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네뻬틀라이즘(nepantla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아스떼가 사고에서 상부 세계를 오메요칸(omeyocan), 하부 세계를 믹틀란(mictlan)이라고 칭하는데, 그들의 중간 세계, 즉 매개 세계가 네뻬틀라(nepantla)다.

간이 된다.<sup>6)</sup> 아나 까스띠요도 멕시코인이 된다는 것을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16세기에 살고 있다는 의미, 몇 세대가 지났건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미국 내 제 3세계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치까나들은 16세기 조건의 제 3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Hector A. Torres 2007, 155). 그렇게 메스띠사의 문화적 경계지대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치까나들은 두 문화를 지속적으로 가로지르며 그 경계를 끊임없이 지워가는 면모를 가지게 된다.

인종, 국가, 언어, 젠더, 섹슈얼리티, 문화들 사이의 교차로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메스띠사 의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치까나들의 정체성은 복합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레즈비언 작가이자 희극배우인 모니카 빨라시오스(Monica Palacios)는 본인의 다중 정체성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하고 있다(Vicki L. Ruiz 2008, xii).

내가 태어났을 때  
 난 멕시코-아메리칸이라 여겼고  
 그 다음에는 치까나였으며  
 그 다음에는 라티나였고  
 그 다음에는 히스패닉이었고  
 그 다음에는 제 3세계의 일원이었으며  
 (...)  
 그 다음에는 유색인이었고  
 지금의 난 단지 암웨이 판매원 중 한 명  
 그리고 내 삶은 전개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까르멘 깔리스-몬토로(Carmen Cáliz-Montoro)는 치까나 경계지대 미학을 ‘정체성의 전장(a battleground of identities)’에 대한 표현이라고 정의한다(Frederick Luis Aldama 2005, 90). 것처럼 정체성이 연속되지 못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치까나들은 삶에 대한 단일한 전망을 창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치까나 문학 등장인물들의 삶이 파편적으로 경험

6) 경계지대를 앵글로 아메리카에 의한 정치적 지배에 맞선 투쟁의 장소로 구축한 선구자 역할을 치까나는 시인이자 활동가인 앙헬라 데 오요스(Angela de Hoyos)로 1975년에 발간한 시집 『치까노: 바리오로부터의 시 *Chicano: Poems from the Barrio*』에 그 같은 태도가 잘 드러난다.

되고 표현되는 이유나 산드라 시스네로스의 『우먼 홀러링 크릭과 다른 이야기들 *Woman Hollering Creek and Other Stories*』 같은 텍스트에 다양한 인물의 목소리가 마치 모자이크처럼 담겨 나타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치까나들의 그 같은 정체성 문제가 문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또 그런 표현 방법들이 치까나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장르 문제와 언어 문제에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 IV. 치까나 페미니즘 문학과 경계 넘기

미국의 앵글로 문화는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을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옛 방식을 털어 내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글을 쓰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통적으로 미국 주류 문학계에서 남서부 문학을 배제해온 이유는 앞서도 말했듯 초기 미국의 정체성이 청교도적 영국인 중산층 중심으로 단일화된 모델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글로리아 안살두아가 일방적인 앵글로 식 글쓰기 방식은 인종주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Hector A. Torres 2007, 130). 안살두아는 자신이 학교에서 공부할 당시 영어권 작가나 스페인어권 작가에 대해서는 논문을 쓸 수 있었지만 치까노/나 작가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허락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Hector A. Torres 2007, 122). 스페인어권 문학도 아니고 미국이 지향하는 단일화 모델에서도 벗어나 있는 치까노/나 문학을 제도권에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스네로스도 『우먼 홀러링 크릭과 다른 이야기들』의 제목을 스페인어로 된 『작은 기적 *Milagritos*』으로 하려고 했으나 편집자가 스페인어 제목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Virginia Brackett 2005, 81).<sup>7)</sup> 하지만 그 같은 제약 속에서도 치까나

7) 과달루페 성모가 발현한 떼삐약 언덕에 세워진 교회에는 과달루페 성모를 처음 알현한 후안 디에고(Juan Diego)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바로 밖에는 계시판이 있다. 그 계시판에 사람들이 사진이나 신체 각 부위 형상의 현납물을 게시함으로써 신체의 치유나 개인적 소망을 비는데 그런 계시물을 기적(milagros)이라고 부른다. 『우먼 홀러링 크릭과 다른 이야기들』의 한 이야기 제목이 영어로 된 「작은 기적 Little Miracles」이다.



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문학 형태, 혼종적이고 복합적인 특유의 글쓰기 방법을 개척해왔다.

경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치까나 작가들에게서는 순간이나 장면, 이미지에 사로잡힌 삶에서 생겨난 무력감을 표현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것처럼 치까나 작가들이 정의의 논리가 부재하고 자아 성취가 폐쇄당하는 단속(斷續)적인 세계를 문학으로 형상화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계적이고 파편적으로 경험된 주체성에 어떻게 목소리를 부여할 것인지는 그들에게 있어 일종의 숙제 같은 것이다. 대표적인 치까나 페미니스트 작가인 산드라 시스네로스가 이용하는 문학 구조 역시 본인의 문화 정체성만큼이나 다면적이다. 예를 들어 『망고 스트리트의 집 The House on Mango Street』이나 『우먼 홀러링 크릭과 다른 이야기들』은 잠정적이고 불연속적이며 느슨히 연결된 형태의 서사를 이용해서 분절된 자아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 같은 표현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권력의 경계와 관련된 치까나들 삶의 근원적 신뢰를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Ramón Saldívar 1990, 218). 치까나들의 글 속에 인종, 젠더, 민족성, 섹슈얼리티, 정체성 등에 대해 미국 주류 세계와도 멕시코 여성과도 다른 제3의 관점이 반영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겠다.

다중적인 경계인으로서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치까나들의 다양한 경험은 다(多) 학제 간 접근을 선호하고 유색인으로서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 문학 표현 형태를 전복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들은 시, 산문, 허구의 구분에 도전하며 모든 상이한 장르, 즉 자서전, 픽션, 시, 이론, 비평의 가로지르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내 등이라 불리는 이 다리』나 『경계지대』 그리고 여러 치까나 작가들의 글 모음인 『얼굴 만들기, 영혼 만들기 Making Face, Making Soul, Haciendo Caras』가 대표적인 예로 그런 텍스트들은 에세이, 자서전, 역사 자료, 신화, 시 등의 결합을 통해 지정학적 경계는 물론 장르 경계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있다. 흔히 소설로 분류되는 『망고 스트리트의 집』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문들도 그 텍스트가 시도하

는 장르의 경계 넘기를 입증해준다. 사람들은 그 글에 대해 소설, 단편선, 산문시, 단순 스케치, 자서전, 반(半)자서전, 전적인 허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아이들, 십대, 대학생, 성인, 부모 등 누구를 대상으로 한 글인지도 의심스러워했다. 그만큼 시스네로스의 텍스트가 비직선적이고 비통상적이며 파편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sup>8)</sup> 때문에 그 텍스트는 물론 단편집인 『우먼 홀러링 크릭과 다른 이야기들』도 체리에 모라가의 『전쟁기에 사랑하기 *Loving in the War Years*』나 『경계시대』처럼 메스피사헤 텍스트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글에도 허구와 역사, 발명된 자서전 혹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아는 타인의 삶이 혼합된 자서전의 요소 등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 텍스트로서 시스네로스의 책들은 통상적인 장르 범주화에 저항하면서 지리적 이중성을 보여주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다중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적 리듬감을 가지면서도 허구의 서사력을 갖고 있다는 복합적인 평을 받는다.

치카나 페미니스트 작가들이 장르나 전통적인 원칙, 주제를 파괴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면 그 같은 해체와 다양화의 기저에는 새로운 메스피사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치카나 작가들은 장르, 언어, 문체 등을 혼합하는 혁신적인 서사 기법의 글을 일러 ‘의식적 에세이’라고 칭하는데, 그 ‘의식적 에세이’를 통해 메스피사 의식속의 말을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해낸다(Carmen Haydeé Rivera 2009, 6). 그 같이 전혀 새로운 글쓰기로 인해 치카나 작가들은 자신들의 글쓰기에 대해 다면적인 명칭을 부과하곤 한다. 가령 노르마 깐투는 허구적 자기생물인종글쓰기(fictional autobioethnography)라는 용어로, 엘바 로사리오 산체스(Elba Rosario Sánchez)는 지도 제작술(cartography)의 carto와 역사(historia)의 histo를 결합해 영토적인 동시에 역사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지도역사글쓰기(cartohistografía 혹은 cartohistography)란 용어를 사

8) 시스네로스 자신은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성인 여부와도 무관하게 노동자, 어린이, 시인, 문학하는 학생, 작가, 버스 기사 등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쓰고자 의도했으며 또한 시와 산문을 가로지르는 이야기를 쓰고자 의도했다고 한다.

용한다. 두 경우 모두 경계인으로서 경험하는 자신들의 다중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채택한 방편이다. 그런 표현들은 로사 린다 프레고소가 문화 횡단(transculturation), 혼종성, 문화 교환 과정, 즉 경계 위 거주자들의 삶을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권력관계를 지시하기 위해 멕시코나(Mexicana)와 치까나(Chicana)를 합성한 메치까나(meXicana)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민족 정체성은 언어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많은 치까노/나들은 가정 내 멕시코 문화 속의 사적인 개인인 동시에 미국 주류 사회에 공식적으로 동화되어야 하는 인간이라는 이중 정체성 속에서 언어적으로도 이중적인 경험을 한다. 그들 입장에서 스페인어는 가정의 친밀함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을 주기도 하는 반면 영어는 사회적 관계, 보상, 인정을 향한 문을 열어주는 대신 가족의 친밀감을 전복시킨다. 즉 치까노/나들은 스페인어와 영어 중 어느 한 언어만으로 정의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렇다고 두 언어 모두 온전한 자신들의 것으로 내세울 수 없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나 까스띠요는 앵글로 계도 스페인 계도 아닌 존재 메스띠사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언어에 대한 정당성도 못 가진다고 했다(Deborah L. Madsen 2000, 16). 그 같은 곤혹스런 상황 앞에서 글로리아 안살두아는 ‘표준 스페인어로도 표준 영어로도 완전히 정체성을 부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본인들 스스로의 언어를 창조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던가?’라고 반문하며 치까노/나 스페인어를 자연스럽게 발전한 경계 언어, 새 언어, 자신들의 생활방식에 상응하는 언어로 규정하는 한편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내는 치까노 스페인어는 틀린 언어가 아니라 살아 있는 언어라고 주장한다(2007, 77). 영어도 스페인어도 아닌 치까노/나 언어는 ‘그들’과는 다른 ‘우리’를 규정할 필요에서 생겨난 언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를 병기하고 있는 안살두아의 책 제목 ‘보더랜드/라 프론테라’ 자체가 언어와 관련된 메스띠사 경험의 이중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데브라 블레이크(Debra J. Blake)는 스페인어 단어나 문장을 이탤릭체 등으로 구분해 표기하

는 치카나 작가들의 일반적인 관행마저도 거부하는데, 그것은 치카나나 미국 내 멕시코의 공통적 언어 관습으로서의 그리고 동화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이중 언어주의를 상징하기 위함이다(2008, 8). 스페인어를 다른 글자체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자연스러운 정체성을 해치는 결과이자 지배 문화에 굴복당하거나 그 앞에서 주눅 든 모습의 반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치카나들의 사고 과정, 삶과 세상에 대한 관점에 공존하고 있는 두 언어는 서로 아주 다른 실재로 기능한다. 치카나 작가들의 글에 영어와 스페인어가 곳곳에서 뒤섞여 등장하는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 치카나 작가들은 스페인어로만 표현 가능한 것도 있고 스페인어로는 표현 불가능인 것도 있어서 어떤 것은 영어로 또 어떤 것은 스페인어로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가령 아나 까스띠요의 경우 시는 스페인어로만 쓰고 픽션은 스페인어로 쓸 수가 없어서 쓰지 않는다고 한다(Hector A. Torres 2007, 163). 그러므로 치카나 식 말하기와 쓰기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로부터의 일종의 차용이 필요하다. 그 결과 치카나 작가들이 쓰는 문장의 표현이나 어순 역시 스페인어와 영어의 혼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그들의 영어에는 길거리에서 흔히 들려오는 구어가 많이 섞여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 역시 교육받은 스페인어가 아닌 일상의 스페인어, 노동자들 사이의 스페인어인 경우가 많다. 사실 멀지 않은 과거까지만 해도 치카나 페미니즘 문학은 심지어 멕시코에마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렇다 할 관심도 받지 못했다. 일차적으로는 스페인어로 번역이 많이 되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스페인어로 된 경우에도 그 스페인어가 조악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그와 관련해 안살두아는 언어 순수성을 주장하기 마련인 스페인어과나 포르투갈어과 사람들은 『경제지대』에서 문제를 느낀다며, 그들은 멕시코 스페인어는 참아도 치카노 스페인어는 못 참는다고 지적한다(Hector A. Torres 2007, 128). 치카나 페미니스트 작가들의 스페인어가 일반적인 스페인어와는 다른 데다 언어 사용 역시 특징적이고 의도적이어서 여러 모로 낯설고 이상하기 때문이다. 그 같은 언어상의 독

특함 그 뿌리에 경계인인 치까나들의 정체성이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sup>9)</sup>

치까노/나 글쓰기에서 그 같은 언어적 이중 의식은 ‘코드 바꾸기(code switching)’로 지칭되는데, ‘하나의 시나 글에서 두 언어를 쓰는 것(interlingualism)’은 ‘서로 다른 두 시나 글에서 두 언어를 쓰는 것(bilingualism)’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가령 시 한 편에 영어 제목과 스페인어 제목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를 다른 하나의 원본으로 본다는 의미인 번역과는 다른 것이다. 영어와 스페인어 간 코드 바꾸기 기법은 문학 전통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일종의 전술로 안살두아는 이를 언어 테러리즘이라 불렀다(Sonia Saldívar-Hull 2000, 20). 어떤 사람이 스페인어나 여타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말하고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어를 모를 경우 문맹으로 간주하곤 하는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일종의 적극적 저항이기 때문이다. 마르타 산체스(Marta Sánchez)가 치까노/나 글쓰기의 이중 언어는 ‘페이지 표면에서 스페인어 사용 독자와 영어 사용 독자라는 두 주요 독자 간의 갈등과 긴장감을 드러낸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Deborah L. Madsen 2000, 23). 것처럼 한 글에서 두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치까나 작가들에게는 전복적인 행위인 동시에 치까나 고유의 경험을 표현하면서 바리오 내 여성 삶의 일상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치까나 페미니즘 작가들에게 있어 코드 바꾸기는 문화를 가로지르는 정체성의 표현이요 메스피사를 문화적 경계지대에 위치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색인 여성으로서 그들 자신의 언어, 스페인어도 영어도 아니지만 둘 다인 언어는 메스피사 그리고 치까나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이론화하고 창조해줄 새로운 언어로 자리한다.

9) 치까나 페미니스트와 멕시코 페미니스트 간에 제대로 된 일련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그나마 멕시코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치까나들의 특징적인 언어 사용이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치까나 페미니즘 문학의 활성화 덕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 V. 또 하나의 경계

최근 치카나 레즈비언 문학의 융성에서 보듯 치카나 페미니즘에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근거한 성적 금기 가로지르기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여기서는 치카나 페미니즘이 서둘러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경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노동 계층 혹은 준 전문직 치카나 여성들에게서 구전들을 채록해서 분석한 데브라 블레이크의 연구는 그 구전들이 다차원적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전문 지식인 작가들의 허구적 혹은 자서전적 글쓰기의 주제인 여성 섹슈얼리티의 억압, 제한적인 젠더 역할, 남녀 관계의 불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은 주제들 면에서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블레이크는 그들의 구전 역시 역사, 이야기, 자서전, 증언 등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어 치카나 페미니즘 작가들의 글 만큼이나 장르를 초월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한다(2008, 186).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나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 같은 남성 작가들은 알면서도 거의 모두가 치카나 작가들의 글을 접해보지 못한 것으로 말했다고 한다.<sup>10)</sup> 치카나 페미니즘이 학계를 벗어나 비교적 널리 번져가고 있다는 하지만 적어도 최근까지는 이론가, 문학 작가, 활동가, 예술가 등 소위 지식인들의 경계 내에 주로 머무르는 수준이어서 대중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10) 블레이크는 노동 계층 혹은 준 전문직 치카나 여성들이 치카나 작가들을 모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5 가지로 들고 있다(2008, 203). 첫째,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치카노/나 작가들의 글이 주류 대형 출판업계에서 발간된 수가 소수에 불과했고 주로 영세 출판업계에서 나왔다. 둘째, 라틴아메리카에서나 미국에서나 치카노/나 작가들은 비주류여서 중등 교육과정이나 대학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즉 21세기 초 특히 학계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여전히 비주류이기는 마찬가지여서 아프리카 출신 작가들의 글보다 오히려 관심이 떨어진다. 셋째, 일부 대학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경우도 주로 치카노 작품에 비중을 두었다가 출판상의 성공과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1990년대에 와서야 상황이 달라졌다. 넷째, 초등학교생들에게 독서를 추천하는 경우도 그다지 많지 않다. 다섯째, 노동 계층과 준 전문직 여성들도 여유시간을 독서보다는 텔레비전 등에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블레이크도 지적하고 있듯 그 상황은 미국 주류 문학계나 출판계의 뿌리 깊은 편견과 일부 관계되어 있다.

치까나 페미니즘의 확산은 1980년대 치까나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노르마 깐뚜, 체리에 모라가, 팻 모라, 루차 꼬르빠(Lucha Corpi), 알리시아 가스빠르 데 알바(Alicia Gaspar de Alba), 글로리아 안살두아 등 그들 중 일부가 학계 내에서 글을 씀으로써 다른 작가들에게도 문학 무대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와 연관되면서도 그에 앞서 보다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점은 치까나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관심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출판계의 인식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즉 인종 문학, 여성 문학 시장의 성장이 다문화주의를 만나면서 발생한 현상이었다(Frederick Luis Aldama 2005, 89-90). 1991년 미국 주류 출판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랜덤 하우스(Random House)가 재발간해서 120만권을 판매한 『망고 스트리트의 집』(1983)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 후 여러 출판사가 잇따라 치까나 페미니스트 작가들의 글을 발간함으로써 그들의 글과 관련된 출판 상황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마침내 라티노 전문 출판사까지 등장함으로써<sup>11)</sup> 다른 작가들에게도 출판의 기회가 넓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주류 시장이 보다 폭넓은 유포 기회 그리고 금전적 지원 가능성을 주기도 하지만 창의력에 제약을 가하기도 하고 또 주류 문학이 아니라는 점에서 치까나 작가들의 등장 기회를 제한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출판사는 어떤 독자들이 어떤 책에 돈을 지불하는지 시장 조사를 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비교적 소수의 작가들을 일단 찾고 나면 다른 작가들을 살피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특히 소위 ‘비주류’ 문학일 경우 그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작가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주류 출판계를 통해 세상에 나오는 치까나들의 작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사장되는 목소리도 같이 증가하고 있

11) HarperCollins's Rayo Press 같은 출판사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즉 출판계가 일부 작가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는 있지만 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담은 여러 작가들은 체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세계적인 작가로 거듭난 시스네로스나 미국 주류 문화에도 목소리를 내고 또 거기에 맞서 다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말을 거는 아나 까스띠요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는 작가들, 가령 극단적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치까나 레즈비언 작가들의 책은 많은 경우 여전히 출판을 거부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중에게는 알려지기 힘든 상태다. 시스네로스가 주류 출판계로 편입되어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차지한 것도 1991년에 와서야 겨우 가능했던 일로 『망고 스트리트의 집』이 재발간되고 『우먼 홀러링 크릭과 다른 이야기들』이 주목을 받으면서부터였다. 그런데 주류 출판 시장에 들어가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팻 모라의 경우만 해도 비교적 최근까지 출판을 거절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Frederick Luis Aldama 2005, 93). 그러니 아직 인지도가 떨어지는 작가들의 경우 사정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제법 알려진 작가들마저도 출판 업계의 경제 여건에 따라 앞으로 언제든지 다른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실들은 치까나 페미니즘 문학이 대중과의 폭넓은 교감을 이루어 내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다는 점을 말해준다.

대중과의 경계를 지워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지식인들이 대중의 시각에 무관심한 채 너무 이론적으로만 앞서나가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자신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상징 선택 문제에 있어 치까나 일반 대중들은 주로 교회의 과달루페 성모를, 그리고 소위 선진적인 의식을 가진 일부 치까나들의 경우 말린체나 요로나처럼 비교적 친숙하게 알려진 존재들을 선호하는 반면 많은 전문 지식인들은 현재 자신들의 주된 여성 상징을 원주민 여성 신에게서 찾고 있다. 그 여신들의 강력한 힘과 성적 능력을 회복시켜냄으로써 원주민의 정신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식인들은 과달루페를 원주민 여성 신의 아바타로 인식하며 둘을 연결시키고 있지만 일



반인들은 옛 여성 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따라서 의미 있는 상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원주민들의 문화적 관행을 먼 옛날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지 현대의 치까노/나들의 인종적, 민족적 실존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길 뿐이다. 것처럼 멕시코족 여신들이 일반 치까나들의 대중적 기억 속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중의 의식과 저항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학자, 작가, 예술가들이 그 여신들에 대한 대중의 폭넓은 호응도와 효과를 기대하며 되살려내는 것에 대해 일말의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일각에서는 실제 그에 대한 비판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전문가들의 상징이나 이미지가 치까나 대중들에게서 반드시 호응을 얻거나 대표적인 것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전문가들 글과 대중들 구전 이야기의 주제가 비슷하면서도 상징적인 존재가 다르다면 치까나 페미니즘 문학의 미래 저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치까나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 대중과 지식인들 간의 경계 지우기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그 성공 여부가 치까나 페미니즘 문학의 미래를 또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Aldama, Frederick Luis(2005), *Brown on Brown: Chicano/a Representations of Gender, Sexuality and Ethnicit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Anzaldúa, Gloria(ed.)(1990), *Making Face, Making Soul, Haciendo Caras: Creative and Critical Perspectives by Feminists of Color*, San Francisco: Aunt Lute Books.
- \_\_\_\_\_(2007),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3rd ed., San Francisco: Aunt Lute Books.
- Arredondo, Gabriela F. et al.(ed.)(2006), *Chicana Feminisms: A Critical Reader*, USA: Duke University Press.
- Blake, Debra J.(2008), *Chicana Sexuality and Gender: Cultural Refiguring in*

- Literature, Oral history, and Art*, USA: Duke University Press.
- Brackett, Virginia(2005), *A Home in the Heart: The Story of Sandra Cisneros*, North Carolina: Morgan Reynolds Publishing.
- Cantú, Norma E. and Olga Nágera-Ramírez(ed.)(2002), *Chicana Traditions: Continuity and Change*, US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Cisneros, Sandra(1984), *The House on Mango Street*, New York: Vintage Contemporaries.
- \_\_\_\_\_(1991), *Woman Hollering Creek and Other Stories*, New York: Vintage Contemporaries.
- Comer, Krista(1999), *Landscapes of the New West: Gender and Geography in Contemporary Women's Writing*, US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Donohue, Cecilia(ed.)(2010), *Sandra Cisneros's Women Hollering Creek*, New York: Rodopi.
- Fregoso, Rosa Linda(2003), *meXicana Encounters: the Making of Social Identities on the Borderland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nzález, Deena J.(2001), "Chicana Identity Matters," Chon A. Noriega, Eric R. Avila, et al.(ed.), *The Chicano Studies Reader: An anthology of Aztlán, 1970-2000*, USA: University of California, pp. 411-426.
- Heredia, Juanita(2009), *Transnational Latina Narrativ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Politics of Gender, Race, and Migra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eón, Luis D.(2004), *La Llorona's Children: Religion, Life, and Death in the U.S.-Mexican Borderland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dsen, Deborah L.(2000), *Understanding Contemporary Chicana Literature*, US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Miller, Francesca(1999), *Latin American Women and the Search for Social Justice*, London: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Moraga, Cherríe L.(2000), *Loving in the War Years: lo que nunca pasó por sus labios*, Massachusetts: South End Press.
- Perez, Dominio Renee(2008), *There was a Woman: La Llorona from Folklore to Popular Cultur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Pérez, Emma(1999), *The Decolonial Imaginary: Writing Chicanas into History*, USA: Indiana University Press.
- Quintana, Alvina E.(ed.)(2003), *Reading U.S. Latina Writers: Remapping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Riddell, Adaljiza Sosa(2001), “Chicanas and el Movimiento,” Chon A. Noriega *et al.*(ed.), *The Chicano Studies Reader: An anthology of Aztlán, 1970-2000*, USA: University of California, pp. 359-370.
- Rivera, Carmen Haydee(2009), *Boder Crossings and Beyond: The Life and Works of Sandra Cisneros*, California: Praeger.
- Rivera, Tomás(1991), *The Complete Works*, Julián Olivares(ed.), Texas: Arte Publico Press.
- Ruiz, Vicki L.(2008), *From Out of the Shadows: Mexican Women in Twentieth-Century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ldívar, Ramón(1990), *Chicano Narrative: The Dialectics of Difference*,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Saldívar-Hull, Sonia(2000), *Feminism on the Border: Chicana Gender Politics and Literature*, US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andoval, Anna Marie(2008), *Toward a Latin Feminism of the Americas: Repression and Resistance in Chicana and Mexicana Literatur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Segura, Denise A. and Beatriz M. Pesquera(2001), “Beyond Indifference and Antipathy: The Chicana Movement and Chicana Feminist Discourse,” Chon A. Noriega *et al.*(ed.), *The Chicano Studies Reader: An anthology of Aztlán, 1970-2000*, USA: University of California, pp. 389-410.
- Tokarczyk, Michelle M.(2008), *Class Definitions: On the Lives and Writings of Maxine Hong Kingston, Sandra Cisneros, and Dorothy Allison*, USA: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 Torres, Hector A.(2007), *Conversations with Contemporary Chicana and Chicano Writers*, USA: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강 성 식

서울대학교

kongyonga@hotmail.com

논문투고일: 2013년 2월 2일

심사완료일: 2013년 4월 8일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9일

# Chicana Feminism Literature and Border

**Seong-Shik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ang, Seong-Shik(2013), *Chicana Feminism Literature and Border*.

**Abstract** In this article we consider Chicana Feminism literature focusing on the concept 'border.' The borderlands and chicano/as were formed as a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the United States's 'conquest' of the Mexican territories with the racism. With the formation of the borderlands, the people on the U.S./Mexico border have been viewed by Americans as Mexicans but by Mexicans as Americans. Then as new cultural citizens on the borderlands, chicano/as symbolically and physically have crossed over the border constantly. It is not only geographic border but also linguistic, spiritual, psychological, ethnic and racial borders that they have to travel. Therefore chicano/as are products of the transition of the cultural and spiritual values of one group to another. Because mestiza consciousness is born of life in the 'crossroad' between races, nations, languages, genders, sexualities and cultures, chicanas have multiple identities. To give voice to that subjectivity experienced as marginal and fragmentary, chicana feminist authors resist generic categorization and cross all the different genres. Chicanas can't be entirely identified with neither Spanish nor English, then they use 'code switching' between two languages. That is creation of their own language. Linguistic code switching is expressing cross-cultural identities and locating their literature on cultural border. But chicana feminists must cross over another important border, the border or gap between chicana intellectuals and the working chicana masses.

**Key words** Chicana, Feminism, Border, Mestiza, Identity